

새 책

▶언어 왜곡설(현길연 지음)=곧 등단 40주년을 맞는 원로 작가인 저자에게도 관계를 다루는 소설은 쉽지 않다. 이 책은 '관계'와 '언어'에 대한 저자의 오랜 관심을 바탕으로 내밀한 관계에서 관찰되는 애증을 드러낸다. 인간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무엇이 올바른 관계인지를 탐구하는 작가의 고뇌의 흔적이 진하게 묻어있다. 문학과지성사. 1만4000원.



▶일의 기쁨과 슬픔(장유진 지음)=작가의 첫 번째 소설집이다. 여기에 실린 8편의 소설은 주로 이삼십 대 젊은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각자의 애환이 담긴 직장생활을 실감나게 그려낸 데서 한발 더 때 일상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청년들의 아픔을 세심하게 담았다. 그럼에도 끝내 반짝이는 삶의 소중함 순간을 비춘다. 창비. 1만4000원.



▶런던의 아침에 태양의 꽃을 장식하다(홍승훈 지음)=삶이 힘겨운 사람들을 위한 7가지 인생 테라피다. 20년 넘게 경제 심리 전문가로 활동해 온 저자는 삶의 아픔을 꺼안는 심리·정신적 치유법을 제시했다. 다양한 인물이 각자의 상처를 끌어안고 극복해가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그 속에서 발견한 가치들이 '인생이 주는 아름다운 선물'임을 힘줘 말한다. 켈리판다. 1만5000원.



▶전쟁과 자본주의(베르너 쾰머트 지음, 이상률 옮김)=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자본주의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고전 사회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칼 마르크스,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의 발생 원인을 '생산·생산자'를 중심으로 살피며 연구 성과를 남겨왔다.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저자는 이들과 달리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를 '전쟁'이라는 독특한 시각으로 바라본다. 문예출판사. 1만8000원.



▶같이 해서 더 좋아(정호선 지음)=아이 둘이 손을 꼭 잡고 있다. 뺨뺨 귀에 초롱초롱 빛나는 눈, 오밀조밀 귀여운 코와 입까지 꼭 닮은 쌍둥이 하진·하영이다. 둘은 뭐든지 함께한다. 맛있는 과일을 나눠 먹고 즐겁게 춤을 추고, 둘이 하면 힘든 일도 반으로 준다. 쌍둥이의 감쪽한 하루가 함께하는 즐거움을 이야기한다. 길벗어린이. 9500원.



▶무덤가의 비밀(문성희 지음)=밤마다 사라지는 누렁이와 여긴가 달라진 아버지의 모습. 이를 눈치챈 채민은 평소 탐정 만화를 즐겨 읽는 사홍식과 함께 아버지의 비밀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그 끝에 마주한 것은 백제 문화 연구에 여념이 없던 가오배 선생님과 아버지, 두 사람의 그림자 속에 감춰진 백제 유물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해 펴낸 책은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나라가 겪은 문화 수난을 생생하게 담아내면서 우리 문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바람의아이들. 1만1000원.



제주도, 그 세 음절 소리에 마음의 평화

브렌다 백 선우의 '...나의 제주 돌집'

2015년 에월에 25평 돌집 정착·적응기 담은 에세이

미국에 살던 그가 제주를 오가기 시작한 건 2001년이다. 1994년 10대이던 아들을 잃은 뒤 마음을 가눌 길 없어 남편과 동행해 이곳저곳 '힐링여행'을 다녔던 그에게 제주를 각별했다. 2007~2009년에는 제주 해녀에 대한 현장 취재를 거쳐 'Moon Tide-jeju Island Grannies of the Sea(불매-제주의 바다 할망)'도 냈다.

프린서 사진가로 활동하는 재미교포 3세인 브렌다 백 선우 작가. 그가 제주에 남편과 여생을 보낼 집을 마련한 사연을 에세이로 엮었다. 지난해 가을 영문으로 펴낸 'Stone House on Jeju Island'의 한국어판인 '바람이 위로하고 달빛이 치유하는 나의 제주 돌집'이다.

노부부는 2015년 제주에 정착 할 마음을 굳히고 스물다섯 평쯤

되는 '친환경적이고 한국의 문화가 담긴 집을 지을 수 있는 집터'를 찾아나섰다. 그 과정에 북서부 해안인 애월읍에 버려진 낡은 돌집이 눈에 들어왔다. 애초 건축 기간을 5개월로 예상했지만 무려 18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두 사람의 보금자리가 탄생했다.

'...나의 제주돌집'은 에월에 있는 돌집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주에 오게 된 배경, 정착과 적응기, 제주에서 2년을 보내며 어촌 마을에 살기로 한 결정이 옳았음을 확인한다는 저자의 제주의 삶에 대한 예찬을 풀어놓는다. 이곳에서 재배한 채소를 캐 먹고 때로는 대문을 열어놓고 지내며 1~2km 정도의 거리는 두 발로 걷는다. 지나치게 친밀한 시골 생활의 특성상 가끔 뜻밖의 일과 마주하지만 불안이나 걱정보다 흥미로운 발견으로 여긴다.

그저 소리내어 말하는 것만으로 '제주도'라는 세 음절이 마음의 평화를 불러온다는 브렌다 백 선



우 작가. 지금도 해변으로 밀려와 부서지는 파도를 보노라면 저절로 두 손 모아 빌게 된다 그는 대자연이 가르쳐주는 겸손함, 장엄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래서 근래 제주 마을 곳곳의 과도한 개발, 신당의 훼손, 퇴거강요, 우렁스러운 군사화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현실이 우려스럽다. 그는 "국가와 정부 부처, 사람들 사이에 더욱 많은 대화가 오가고 행정적 처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듯, 섬 하나를 보존하려면 대대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썼다. 서울 셀렉션. 1만3000원. 진선희기자

68혁명의 소환... 삶을 가로지르는 정치를

프랑스 철학자 알랭 바디우의 '반역은 옳다'

프랑스 68혁명은 반전운동과 혁명운동의 분위기 속에 촉발해 그 나라의 낡은 관습과 체제, 문화까지 바꾸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실패한 혁명일 수 있지만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 점은 명백해보인다.

이전에 대학 구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교수에게 뺨을 맞았던 학생들은 교수와 동등한 관계를 만들어간다. 실험대학으로 설립된 파리 8대학에 보수적인 제도권 학계가 결코 수용할 수 없었던 푸코, 들뢰즈 등이 자리잡을 수 있었던 일도 혁명의 영향이다. 페미니즘 운동과 성소수자 운동은 남성 중심주의가 지배하는 프랑스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를 신랄하게 공격하며 그 문화를 떠받치고 있던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후퇴시켰다.

알랭 바디우의 '반역은 옳다'는 1968년 5월 혁명 50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8월 프랑스에서 출간됐다. 과거의 향수를 좇는 게 아니라 68혁명이 50년이 지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상기시키고 그 사건이 어떤 효과를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쓰여졌다. 1968년 당시 시대의 영웅이었다가 지금은 평범한 정치인이 된 콘 벤디트 같은 68세대가 이젠 68혁명이라는 단어에서 혁명성을 제거해 기념품으로만 간직하려는 의도를 비판하는 데서 집필 의도가 읽힌다.

그는 68혁명이 유럽의 오랜 정치투쟁과 노조 파업 방식과는 달랐다는 점에 주목했다. 몇몇 학생들이 제의하곤 뚜렷한 조직도, 지도부도 없었다. 강력한 혁명의 대중집단이 혁명을 만들어낸 주체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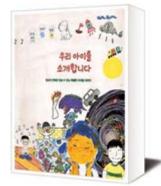


고 그들은 기존의 제도화된 조직과 거리를 뒀다.

고령의 철학자 바디우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억압적 정치가 우리의 일상을 통제하고 안전 담판을 확산시키는 현실에서 여전히 혁명적 변화는 유효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는 온전한 삶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건 혁명적 정치의 영역에 있다고 강조한다. 서울문예출판사. 1만3000원. 진선희기자

이 책 '우리 아이를 소개합니다'

당신이 언제든 만날 특별한 아이들



어느 부모가 엘리베이터에서 겪은 일이다. 아이는 환호성을 지르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했다. 방방 뛰면서 좋아하는 아이를 그 안에 탄 사람들이 원망과 한심함이 섞인 눈초리로 쳐다봤다. 아이는 발달장애 아동이었다. "저도 이 상황이 싫고 괴롭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혹시 아시려나요? 지금 이 아이에겐 아무것도 안들려요." 부모는 속으로 그런 말을 하고 싶었다.

발달장애는 겉으로만 보면 비장애 아동과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종종 오해를 받는다. 발달장애의 정도가 저마다 다르고 주변에서 발달장애인을 많이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주도 발달장애아동 부모 모임인 '제주아이 특별한아이'. 모든 아이는 특별하고, 우리 아이도 그중 하나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은 '제주아이 특별한아이'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일상과 생각, 독특한 개성 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아이들을 더 가까이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며 그림책을 엮었다. '우리 아이를 소개합니다'란 제목이 달린 옴니버스 그림책으로 '당신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아이들 이야기'를 가족의 눈으로 담아냈다.

그림책 제작을 위해 지난 4~10월 '발달장애아동 부모의 옴니버스 그림책 만들기 워크숍'이 이루어졌다. 아이의 부모, 형제자매가 글과 그림 작업을 맡아 '나도 할 수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주원이는 대단해' 등 11편을 탄생시켰다.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뇌병변, 언어장애, 발달장애 등을 가진 아이들의 사연을 만날 수 있다.

"장애아를 키우다 보면 세상 일이 무엇 하나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는 걸 배우고 경험하게 된다. 사람이 자라는 동안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 같은 모든 기능들이 상당히 과학적이고 신비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하나하나 세밀하게 볼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든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된다."("내 아이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 중에서)

11월 8~10일, 15~17일에는 제주시 삼도2동주민센터 옆 그림책갤러리 제라진에서 전시회를 연다. 개막 행사는 첫날 오후 7시, 12월 20~22일에는 예술공간 이아에서 그림책 제작 과정을 담은 영상을 방문객과 나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홍익여행사
746-2200
www.jejuhongik.co.kr

★일반여행업등록 제1016호★ 2009 문화관광부 제주마이스터 & 인센티브제주여행 상품 인증/2억원 보증보험 가입업체/예약계좌: 제주은행 21-13-003418 예금주: 제주홍익여행사 '고객감동 해외여행서비스'

못말리는 제주직항전세기

TOUR 예약폭발 마감임박!

꽃보다 청춘! 제주직항 3박 5일

라오스 비엔티안/빙비엔

12/11(수) 단하루

★전신맛사지 2시간
★버라이어티 탐방종굴
★카약 래프팅 ★블루라군

관광패키지 999,000원~
골프 54홀 1,290,000원~

눈이 부시는 동양의 라스베이거스, 마카오

제주직항 마카오 전세기

1만의 취향별로 마카오를 즐기세요

1. 주해/마카오 4일 799,000원 (월, 수 출발)
2. 마카오/주해/심천 5일 899,000원 (금, 일 출발)
3. 마카오/단하산 5일 950,000원 (금, 일 출발)

하노이/하롱베이/닌빈(짱안)

3박 5일 제주직항으로 떠나는 환상의 여행

12/28(토) 선착순
2/19(수) 899,000원

★특식3회 (파라다이스뷔페, 씨푸드, 삼겹살 무제한)
★전신맛사지 1시간 (팁별도), 베트남 전통노자 증정, 스트리카 포함

IATA **공/통/사/항** 왕복항공료, 1급호텔(2인1실), 일일상의 식사제공, 관광지입장료, 전용차량료, 인술자 부분별 동행, 1억원여행자보험,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기금, 공항세, 최소 15명이상 출발 모집패킹-선착순 ★불포함: 가이드 & 기사 팁/개인비용, 부가세 불포함